

#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

## 108만표차 문재인 후보 이겨...첫 여성·과반 대통령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박근혜 후보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과반 득표를 이뤘다.

또한, 박 후보는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부녀가 대통령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됐으며, 새누리당 보수정권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10년을 이어가게 됐다.

20일 1시30분 현재, 개표가 96.69% 진행된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51.62%(1527만2878표)를 얻어 47.95%(1418만6341표)에 그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두 후보의 득표 차는 108만여표다.

박 후보는 경북 80.82%를 최고로 대구(80.14%), 부산(59.86%) 경남(63.35%), 강원(61.97%), 울산(59.

79%) 등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40% 이상의 고른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다.

문 후보는 광주(91.7%)와 전남(89.28%), 전북(86.25%), 서울(51.57%) 4곳에서 득표를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선거인수 4050만7842명 가운데 3072만2912명이 참여해 7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1997년 제15대 대선 때의 80.7%보다 4.9%포인트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2002년 제16대 70.8%, 2007년 제17대 63.0%보다 각각 5.0%포인트, 12.8%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집약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가 당선된 것은 경제 민주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안팎의 도전

과 시련을 극복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된 특별무대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여성 리더십과 국민대통합을 앞세운 ‘박근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변화가 예상된다.

문 후보는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패배를 공식 선언한 뒤 “박근혜 당선인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 패배로 민주당 등 야권

| 18대 대선 관련기사 |                 |
|-------------|-----------------|
| 2 ▶         | 공약으로 본 광주·전남 미래 |
| 3 ▶         | 박근혜 당선자 승리 요인   |
| 4 ▶         | 출마에서 청와대 입성까지   |
| 5 ▶         | 박근혜 당선자 살아온 길   |
| 6 ▶         | 광주·전남 정치권 영향은   |
| 7 ▶         | 투·개표 이모저모       |
| 8 ▶         | 광주·전남 주민 반응     |
| 9 ▶         | 인종상 할인마켓 복직     |
| 10 ▶        | 새 정부 경제 과제      |

은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당장, 문 후보를 정점으로 한 친노(친노무현) 주류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민주당내 세력관도에 대변화가 예고되는 것은 물론 법야권 전체에 정계개편의 ‘빅뱅’이 감타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19일 밤 여의도 당사 상황실을 찾아 당직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약속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 되겠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승리가 확실해지자 19일 오후 11시53분께 광화문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라며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이번 선거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국민 마음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기

간 동안 가는 곳마다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꼭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3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 당선자는 “선거 운동 중에 큰 사고가 났다”며 “저를 돕던 분들을 떠나보냈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회

상했다. 그는 ‘보람 있었을 때’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분들과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다시 보고 싶다”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또 “선거 중에 크게 3가지를 약속했다”며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을 얘기

했는데,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 만난 많은 국민 여러분과 주먹만한 알밤을 쥐어 주신 분과 격려해주신 분들을 다시 뵙고 싶다”며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자는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께서 열 수 있도록 해주셨다”며 “보내주신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행복 시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 광주 동구청장 노희용 후보 당선

서울시교육감 문용린·경남지사 홍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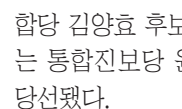
제18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전남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동구청장에 노희용(사진)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다.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노희용 후보가 4만808표(61.01%)를 획득해, 2만2271표(33.29%)를 얻은 무소속 양혜령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새누리당 최정원 후보는 3910표(5.68%)를 얻는데 그쳤다.

광주·전남지역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동구 나 선거구의 경우 민



주통합당의 김기춘 후보가, 여수시 바 선거구는 통합진보당의 김영철 후보가, 여수시 자 선거구는 민주통



합당 김양효 후보, 화순군 가 선거구는 통합진보당 윤석현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한편,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이날 밤 12시 현재 90만3890표

(64.21%)로, 50만3774표(35.78%)의 득표에 그친 무소속 권영길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된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보수 후보인 문용린 후보가 53.82%인 90만4025표를 얻어 37.30%(62만6496표)를 얻은 진보 진영 이수호 후보를 16.52%P 차이로 앞서면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최권일기자 cki@

**광 신 대 학 교**  
**‘2013’ 학부정시(가군)**  
■원서접수■  
**12.21(금)~26(수)**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文 “정권교체 국민 뜻 못이뤄 죄송”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대선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 기자회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선거를 도왔던 캠프 관계자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전국의 자

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패배를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저의 실책이지,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실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밝힌 뒤 “박 당선인이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줄 것을 기대한다”며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국민적 성원을 당부했다. /이종행기자 glee@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일 밤 영등포 당사에서 대선패배를 인정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 넓은 세상을 보라

##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600여명의 취재 기자와 전세계 35개국 46개 도시에 파견한 60여명의 해외특파원망을 통해 24시간 생생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로 우리의 소식을 전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